

2024 년 5 월 5 일 “(가정 1) 남편과 아내”(창 2:21-25; 3:20)

남녀가 사랑하여 한 몸을 이름으로 시작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 크리스찬 남편의 고민

현대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가정들은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며 가족이 빈곤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것과 더불어 중요하게 채워져야 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소통과 돌봄입니다.

네 식구의 가장이었던 한 남편은 이것을 깨닫게 한 계기가 소통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던 아내의 마음이 진심으로 자기 심령에 와 닿았을 때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가정은 자기 방식의 사랑의 길만으로는 충만해지기 어려움을 보게 되며 또한 사랑을 터득하고 실천하여도 열매를 맺기까지 남편과 아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2] 가정의 회복의 길

남편과 아내의 본질적 핵심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터득하려면 진지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신의 이기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주께 의탁하며 매달리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됨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한 몸을 이루며 기뻐했던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고서 내면에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잘못에 대한 변명과 회피와 분노... 아담은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3:17~19). 심판의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드디어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와라고 불렀습니다(3:20). 아담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시고(창 2:15), 구체적으로 주신 첫 사명이 짐승, 새들,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조물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그들의 속성과 특징을 잘 볼 줄 아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내에게도 적용되어 중요한 이름 짓기의 소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남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대단해도 내 힘과 철학과 방식으로 결코 가정을 가정답게 이끌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어떤 사랑의 길을 모색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존재로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이것을 찾기 위해 배우자의 귀한 본질과 위상을 재발견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이 가정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은혜 넘치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현대 사회 속에서 내가 생각해온 남편과 아내의 중요성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봅시다.
2.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서로를 질타했지만 화목의 전환이 일어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줄까요?